

2027학년도
수능 국어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Ver. 1.0

박수영

〈저자소개〉

박수영

– 학력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25학번

– 약력

2024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2025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백분위 100

2025학년도 서울대 물리교육과/연세대 물리학과/고려대 학부대학 정시 일반전형 합격

메가스터디 제 21기 목표달성장학생 (역대 칼럼 추천수/조회수 1위)

(전) 메가스터디 온라인/시대인재 LEET 이원준 선생님 연구실 연구원

사설 국어 모의고사 검토/출제위원

〈목차〉

Part 1. 수능 국어 개론

- ‘수능 국어’라는 과목의 의의와 특수성
- 독해력의 중요성

Part 2. 독서/문학 공부법

- 독서
 - 5% 공부법
 - 스키마 독해
- 문학
 - 〈보기〉의 중요성: 보기는 문학 속의 비문학이다.
 - 필수체크요소
 - 풀이의 루틴 설정

Part 3. 언어와 매체 공부법

- 문법
- 매체

Part 4. 기출과 사설을 대하는 자세

Part 5. 기출/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Part 1. 수능 국어 개론

〈‘수능 국어’라는 과목의 의의와 특수성〉

“수능은 개별 과목의 탈을 쓴 거대한 국어 시험이다.”

- 지리 이기상 선생님, 메가캐스트 〈이기상쌤의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중에서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는 법,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이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와 수능 국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사실 수능 국어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어’가 별 차이가 있나 싶겠지만, 이 두 과목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다룹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발표, 대화부터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학교에서 ‘국어’라는 교과목으로 배우게 되죠.

하지만 ‘수능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고사의 교과목 암기식 시험 형태, 그로 인한 사고력의 미비와 같은 부작용을 위해 개발된 것이 초창기 수능의 목적이었던 만큼, 수능은 원래 탈교과적 특성, 단순 암기의 지양, 사고력과 이해력 위주의 시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과목명이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고, 교과 범위가 바뀐 현재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내신과는 달리, 수능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비연계’, ‘미출제 요소’, ‘신유형’과 같은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발문을 제시합니다. 평가원은 이를 통해 주어진 글을 읽고, 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론하고,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전 과목에 걸쳐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추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은 수능 국어에서 비롯됩니다.

수능 국어에서는 문학이든, 언매/화작이든, 독서든 결국에는 주어진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머릿속에 일종의 ‘모델’을 형성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달달 외웠던 문학 개념어의 지엽적인 의미, EBS 지문에서 글자만 몇 개 바꾼 수준의 **사전 지식은 절대로 문제풀이의 필요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전 지식이 문제 풀이에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평가원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국어는 “극도로 긴장되는 짧은 시간과 압박 속에서도, 새로운 정보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즉 80분짜리 벼락치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mark: 이런 점에서, 수능 국어의 이름을 본질적으로 바꾸자면 ‘언어’ 내지는 ‘언어이해’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능 국어영역의 원래 이름은 ‘언어’였으니까요.

〈독해력의 중요성〉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독해력이라는게 중요하다고 말은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도 불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독해력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주로 분류합니다.

1) 밑줄 긋기나 별다른 행동 없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독해력
(소위 ‘그읽그폴 - 그냥 읽고 그냥 풀기’의 영역)

2) 밑줄 긋기, 스키마와 같은 도해 조직자를 통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
(소위 ‘구조독해’의 영역)

흔히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그읽그폴’ 방식이 정답이니, ‘구조독해’ 방식이 정답이니, 어떤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니 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등 의미없는 논쟁입니다.

두 가지의 독해력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독해 시의 정보 처리 과정을 돕습니다. 일차적으로 1)의 독해력이 먼저 사용되고, 그걸로 이해가 부족하다면 2)의 방식으로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면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전자의 방식만 고집하는 학생은 조금만 정보의 위계가 복잡해지면 길을 잃고 헤매다 추론 문제에서 의문사하게 되고, 후자의 방식만 고집하는 경우 과도하게 관계 연결에만 의존하다가 기초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못해서 틀리는 일이 많죠. 제 경험상, 국어를 잘 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 두 범주의 독해력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데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자는 독해력의 ‘하방’을, 후자는 독해력의 ‘상방’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두

독해력의 범주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Part 1을 마치고,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사실 사범대생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읽그풀, 구조독해 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학문적으로 근본도 전혀 없는 표현일 뿐더러,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알팍한 식견에 기대 제멋대로 강사의 성향을 재단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하거든요. 다만 본 칼럼에서는 그나마 친숙한 표현으로서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불가피하게 그읽그풀과 구조독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보기>의 중요성: 보기는 문학 속의 비문학이다.

학생분들 중 보기의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기는 엄연히 평가원이 ‘판단의 근거로서’ 제시한 객관적 텍스트**로, 해당 지문이나 장르, 서술적 특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기> 문항의 경우 대부분 본문의 일부를 (위 예시문항 세트의 4번 문항처럼) 볼드체로 발췌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도 본문에서 해당 파트 전후로 발췌해서 읽으면서 <보기>의 내용과 비교하며 선지 싸움을 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문제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와의 비교를 통해 말이 안 되는 선지를 한두개 정도 미리 걸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싸움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전후로 발췌독을 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대강이나마 넣을 수도 있고요.

- 필수체크요소

필수체크요소는 지문을 읽을 때 지엽적인 일치/불일치와 문학 개념어를 놓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 문제풀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만큼 놓치지 말고 무조건 반응하자!’ 하는 키워드를 미리 정해두고, 지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반응하고 표시해 둔 다음 나중에 일치/불일치 문제 유형 등을 풀면서 눈알 굴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자연스레 지엽적인 문항을 틀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뿐 아니라, 어려운 지문이라도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최소한의 스토리의 줄거리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의 일치/불일치 및 문학 개념어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자주 나오는 내용의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필수체크요소를 활용했습니다.

현대시 - 색채어, 의성어 및 의태어, 공간적 배경, 비유
고전시가 - 색채어, 의성어 및 의태어, 풍자, 비유, 공간적 배경
현대소설 -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이름
고전소설 - 서술자 개입,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이름과 가계도